



해방 후의 상황과 고신 교회의 형성*

고신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in the 1950's Presbyterian Context.*

이상규¹⁾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차

1. 시작하면서	160
2. 분열의 배경: 신사참배, 고려신학교의 설립, 교회쇄신운동	162
1) 고려신학교의 설립	163
2) 교회쇄신운동	166
3. 분열의 원인	170
1) 경남노회의 재건과 교회쇄신운동의 좌절	171
2) 김길창의 경남노회 이탈	181
3) 총회의 부당한 처리	184
4. 고신교회(단)의 형성	196
1) 초량교회의 명도(明渡) 요구	197
2) 고신교단의 조직	198
맺는말	199

요약

해방 후의 상황과 고신 교회의 형성

이 논문은 해방 후의 상황에서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고신교회가 형성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논문이다. 해방 후 김길창을 비롯한 친일전력의 교권주의자들의 사조 경남노회 조직이 경남노회,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시작이었고, 당시 (남부) 총회가 경남노회 문제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 결과로 정통성을 지닌 경남법통노회가 총회로부터 축출된 것이 고신교단 형성의 배경이 된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논증하였다.

주요어:

한국교회사, 고신, 고려신학교, 교회분열, 교회 연합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in the 1950's
Presbyterian Context.*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in the 1950' s Presbyterian Context.

Prof. Dr.Sang-Gyoo Lee

This theses dealt with the form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in the 1950' s Presbyterian Context. After liberation of 1945, Kim Kil Chang and other pastors who had engaged to pro-Japanese activities including Shinto Worship formed a new Kyung Nam Presbytery illegally. The then General Assembly joined with the rebel presbytery in fellowship, without requiring the pastors who were under discipline to make any public confession of their idolatry and rebellion against the legal presbytery. Since this was contrary to all law and order, the legal presbytery refused to do what the General Assembly sought to require. The final upshot of it all was that the General Assembly refused to seat the commissioners from the legal presbytery in Busan, and eventually pushed ou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is left the legal Kyung Nam presbytery no choice but to organize a new denomination,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osin).

Keywords

History of Korean Church, Kosin, Korea Theological Seminary, Church Division, church Union

1. 시작하면서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만주지방에서 일한 스코틀랜드 장로교선교사들을 통한 접촉이나 한국인의 구도적 활동에 의한 수용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주로 미국북장로교(1884), 호주장로교(1889), 미국남장로교(1891),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1898)에 의해 소개되었다. 주한 장로교선교부는 소위 예양협정에 의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였으나, 1907년에는 '독노회'를, 1912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총회'를 조직하여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하였다. 비록 소수의 분파는 없지 않았으나, 1912년 조직된 장로교 총회는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까지 단일 총회로 남아 있었다. 한국장로교회는 1943년 5월 5일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개편되어 일본 장로교단에 예속되었고, 1945년 8월 1일에는 조선의 모든 교파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함께 '교회재건운동'²⁾이 일어나고 남한만이라도 총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으로 1946년 6월 12일 남부총회가 조직되어 기존의 총회조직을 재건하였다. 1947년 4월 대구

* 이 논문은 2008년 8월 21일 유성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역사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필자 외의 탁지일(부산장신대학교), 서광일(한신대학교), 차중순(호남신학대학교), 박용규(충신대학교), 임희국(장신대학교)교수 간의 토론을 위한 밑재문이었다.

1) 이상규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B. Th), 신학대학원(M. Div), 대학원(Th. M)을 거쳐 호주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PCT)에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호주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Th. D)를 받았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여러 학회와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부산지방 기독교전례사」(갈마당, 2001), 「부요의 저편」(SFC, 2002), 「교회개혁과 부흥운동」(SFC, 2004), 「헬라로마전상황에서의 기독교」(SFC, 2006), 「예수파라가며 복음 순종하면」(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06),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그리고 「개혁주의란 무엇인가?」(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등이 있다.

제일교회에서 회집된 제2회 남부총회는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해산되었던 장로교 총회를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1946년의 제1회 남부총회를 제32회로, 1947년 제2회 남부총회를 제33회 총회로 계승하였는데, 이 총회는 1952년 8월말까지 단일총회로 남아 있었다. 일제하에서의 장로교 총회의 해산은 타의에 의한 강압의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1912년 총회의 조직 이후 1952년 8월까지 40년간 단일 총회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의 장로교회는 3차례의 분열을 통해 고신, 합동, 통합, 기장 등 4교단으로 분리되었고, 이 분열이 오늘의 한국장로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 이후, 특히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수다한 분열을 거듭하여 현재 한국장로교회는 약 100여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리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서 있다.

한국장로교회는 거주선교사의 내한 이후 첫 10여년 간은 성장이 미미했으나, 1895년 이후 뚜렷한 성장을 보였고, 1910년 이래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1960년대, 특히 1970년대 이후 박정희정권의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최선의 과제로 삼았던 당시의 국가정책의 영향 하에서 장로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성장'을 제일의적 가치로 수용하여 교회의 외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특히 현세적 축복을 신앙적 가치로 수용하는 기복주의적 경향은 교회성장의 주요한 동인이 되어

2) '교회재건운동'이란 용어는 해방 후 전개된 친일 청산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칭하는 용어로 김양선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십년사」, 43ff.)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필자는 해방 후 전개된 영적쇄신 운동과 해산된 교회의 가구적 재조직 운동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는 '교회쇄신운동'으로 후자의 경우는 '교회재건운동'으로 표기할 바 있다. 이 글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원칙을 따랐으나 '교회재건운동'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현실을 감안하여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했다.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시기 교회 분열 또한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교회는 성장하면서 분열하였고, 분열하면서 성장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겨우 '분열'과 '성장'은 상호 전제(前提)와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1950년대 장로교회의 3차례의 분열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이 분열의 배경과 과정, 역사, 그리고 신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일은 필요한 일인 동시에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 검토와 함께 앞으로의 일치 혹은 연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의 상황, 경남노회에서 대립과 분열, 그리고 1952년의 고신교회(단)의 형성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고신교단은 왜 분리되었는가에 대해 보고자 한다.

2. 분열의 배경: 신사참배, 고려신학교의 설립, 교회쇄신운동

해방 후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신사참배 문제와 친일청산(고신), 신학적 대립(기장), WCC에 대한 견해차와 경기노회 총대건(합동, 통합)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교권적 대립이나 주도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은 1900년 전후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한상동(1901, 고신), 김재준(1901, 기장), 박형룡(1897, 합동), 한경직(1902,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³⁾ 특히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원인(遠因)이자 원인(原因)이 된다. 특히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취급하려는 1952년의 고신교회(단)의 분열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고신교단 분열의 배경은 신사참배문제와 친일청산의 문제, 고려신학교 설립, 교회재건 혹은 쇄신운동에서의 대립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논저가 있으므로 경남노회 대립의 진원지였던 고려신학교 설립과 교회 재건운동에 대해서만 간단히 기록해 두고자 한다.

1) 고려신학교의 설립

신사참배 반대로 1940년 7월 이래로 투옥되어 있던 주남선(朱南善)과 한상동(韓尙東)목사는 독일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일제의 패망과 한국의 독립을 확신하고 옥중에서 한국교회 재건방안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이 구상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수양원을 설립하여 일제하에서 신앙양심을 더럽힌 교직자들을 수양시켜 새 출발을 가지게 할 것,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교역자를 양성할 것, 그리고 전도인을 양성하여 교회를 설립할 것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신학교육 통한 교회재건(神學立教) 의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해방 당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는 1940년에 설립된 조선신학교 뿐이었다. 조선신학교는 1938년 평양신학교 폐교이후 서울에서 설립

3) 1950년대의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한 필자의 소품으로는, 2004년 9월 18일 한국장로교신학회 제5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연합에 관한 검토," 「학술발표회 자료집」(2004), 11-42 등이 있다.

된 진보적 신학교였다. 이미 있던 평양의 신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신학교가 개교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 인사들이 일제의 정책에 순응적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선신학교는 처음부터 일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외국선교사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김재준의 조선신학교 설립의 변은 1940년 이후 일제의 중요한 정책이었던 세계교회로부터의 한국교회의 이탈정책과 일치하고 있었다. 김재준은 평양신학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전적으로 개혁할 것을 말하면서, “조선교회의 건설적인 실체면을 고려에 넣는 신학”을 강조했다는데,⁴⁾ 이것은 한국교회의 기존의 신학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이 조선신학교는 1940년대 보수주의 신학의 폐허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을 다져 갔고, 해방 후 1946년 6월 11일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동교회에서 회집한 ‘남부총회’에 의해 한국 장로교 직영신학교육기관으로 승인되었다. 이 때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신학교를 총회가 직영키로 하고 대학령에 의한 신학교로 하기로 함.” 이 결의문은 총회록에는 기록되지 않았다.⁵⁾

이런 상황에서 주남선과 한상동은 1946년 7월 9일 진해읍교회당에서 개최된 경남노회 제47회 임시노회에서 신학교설립 허가를 얻고,⁶⁾ 1946년 9월, 박윤선을 교장으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된 것이다. 타협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이 고려신학교 설립의 주된 동기였다. 따라서 고려신학교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을 신학교 설립의 가장 중요

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상동은 일제하의 경험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은 그 시대적 가치에 타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 진보적 신학에 상당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忠良有爲한 皇國의 基督教 教役者를 養成한다”는 조선신학교의 교육 목표⁷⁾는 용납할 수 없는 가치였다. 당시 상황을 한상동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

출옥 이후 이북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남한에 와서 보니 신학교가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일본시대 일본식 기독교를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의 주인이 되어 신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교회를 저들의 손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결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한상동에게는 새로운 신학교의 설립은 시급한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혁주의적인 신학교 설립을 교회의 긴박한 요청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신학교 설립이 가져올 파장을 예견하지 못한 채 학교를 설립했으나 이 신학교는 그 후 경남노회의 대립과 ‘불화의 사과’였다. 조선신학교의 경우에서나 고려신학교의 경우에서 동일한 것은 논란의 핵은 신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의 문제였다는 점이다.

고려신학교가 메첸과 선교사들, 곧 한부선(Bruce F. Hunt), 함일돈(Floyd Hamilton), 마두원(馬斗元, Dwight L. Malsbary, 1929-

4)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예장총회 종교교육부, 1956), 194.

5) 「총회회의록」 11권(1946-195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n.d.), 1-6참고.

6) 이 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고려신학교 설립건은 한상동목사의 취지와 경과보고를 듣고 본 노회에서 인정하고 원조하는 의미로 노회에서 관리하는 진해교회 부속건물 2동을 교사와 기숙사로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7)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9회 총회록(1940), 43.

1982), 최의손(William H. Chisholm) 등과 협력한 일이나, 1947년 10월 24일 교장으로 취임했던 박형룡이 1948년 5월 고려신학교와 결별한 사건은 이 논란을 가중시켜 주었다. 박형룡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조선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 34명이 부산으로 내려와 고려신학교에 편입한 일이나, 그가 교장직을 사임했을 때 편입해 왔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를 따라 장로교신학교를 이동해 간 일은 당시의 신학적 기류를 짐작케 해 준다.

2) 교회쇄신운동

해방을 맞은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교회의 영적 쇄신과 기구적 재건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⁸⁾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론에는 현격한 차이를 노정했다. 흔히 '교회 재건운동'으로 일컬어지는(일제하에서의 친일적 유산을 청산하려는) 영적 쇄신운동은 해방된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일종의 정화운동이었으나 이 문제는 불행하게도 장로교회의 대립과 긴장의 요인이었고, 분열의 음영(陰影)이었다.

북한: 교회쇄신운동의 시원과 좌절

북한에서의 쇄신운동은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이기선목사, 채정민 목사 등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신사참배 강요로 폐쇄되었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여러 지역의 교회와 노회를 재건하였다. 장로교의 경우 평양노회가 1945년의 9월 4일 산정현교회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부흥회와 3

일간의 금식기도를 개최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죄과를 통회자복하였다. 이들은 그 해 9월 20일, 신사참배에 대한 공적인 회개와 자숙, 그리고 신학교육기관의 재건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교회재건 원칙을 발표하였다.⁹⁾

이 교회재건안은 처음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1945년 11월 14일 선천 월곡동(月谷洞)교회에서 모인 평북노회가 주관한 교역자퇴수회에서 이 재건 원칙이 박형룡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 흥택기 목사(월곡동교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비록 우격다짐의 합리화(forced rationalization)였으나 한 집단의 의사를 대변했다. 또 이들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개인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하여 공적 권징안을 거부했다.¹¹⁾

이북지역의 출옥성도 중심의 쇄신론자들과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기성교회 지도자들 간의 최초의 만남이었던 교역자퇴수회는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향후 한국교회의 험난한 행로를 예견케 해 주었다. 즉 최초의 만남에서부터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회개 등 교

9) 이 때 발표된 기본원칙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지도자(목사 혹은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므로 권징(權懲)의 길을 취하여 통회정화(痛悔淨化)한 후 교역에 나아갈 것. (2)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자복(痛悔自服)할 것. (3)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4) 교회재건의 기본원칙을 전환(全轉) 각 노회(各 老會) 또는 지(支) 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이것을 실행케 할 것. (5)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김양선, 45.

10) 김양선, 46.

11) 김양선, 46.

8) 이런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상규, "해방 후 한국교회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제4호(1995), 67ff를 참고할 것.

회쇄신의 문제는 양측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교역자들의 태도가 구태의연하여 회개의 빛은 없고 계속하여 교권유지에만 급급한 현실을 목도한 박형룡은 실의를 안고 봉천으로 돌아갔다.¹²⁾

그해 12월 초에는 잠정적인 치리기관으로서 '이북오도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전의 교회재건 5개 원칙보다 완화된 6개항을 결의했다.¹³⁾ 주로 교회의 외적 재건과 전도 등을 골자로 한 6개항에서는 신사참배의 문제는 구속력 없는 개인적 근신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기선(李基宣) 등은 독로회를 조직하여 '혁신복구파'로 독자적인 길을 갔다.¹⁴⁾ 비록 평양노회와 봉천노회는 자속을 실시하기도

12) 박형룡이 봉천으로 돌아간 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실교회의 회개와 반성의 태도가 적음을 눈물로서 탄식하였고," 어떤 노회에 대하여 "마음을 크고 너그럽게 가져 참고 현실교회에 머물러 점진적으로 회개 정화운동을 행하라고 권면하였다"고 한다. 특히 박형룡은 "교회가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한 교회이니 그 교회로부터 분리하지 말고 교회의 정화와 거룩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충고를 했다고 한다. 박형룡, 「신학난제선평」, 19권, 66-67,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8), 274.

13) 이 때 결의된 6개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5도 연합 노회는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총회를 대할 수 있는 잠정적 협의 기관으로 한다.
2. 총회 헌법은 개정이전의 헌법을 사용하되 남북통일 총회가 열리기까지 그대로 둔다.
3. 전교회는 신사참배의 죄과를 통회하고, 교직자는 2개월간 근신한다.
4. 신학교는 연합노회 직영으로 한다.
5. 조국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독립기념 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6. 북한교회를 대표한 사절단을 남한에 파견하여 연합군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한다. 김양선, 47-8.

14) 이기선 등은 1945년 9월 20일 발표했던 한국 교회재건원칙을 그대로 실시하는 평양산정현교회를 위시하여 선천, 신의주, 강계 등 평안북도와 황해도 등지의 30여 교회들을 규합, 재건하였고, 1949년 5월 중순경 기존 노회와는 별도로 독노회(獨老會)를 조직하였다. 이 독노회는 혁신과 복구를 주장한다 하여 혁신복구파(革新復舊派)라고도 했다. 일제하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일본 기독교단으로 변질했으므로 일본 교단적인 요소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과, 일본 교단에 가담하여 소위 황민화(皇民化)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직분자와 교인권(敎人權)을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이름이었다. 이들은 공산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1951년 1·4후퇴 때 다수의 교인이 월남하여 남한의 재건파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다.

했지만, 그 이후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북한의 교회는 침묵의 교회로 남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출옥성도 중심의 쇄신론자들과 기성교회의 친일적 인사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것이 1950년대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한의 경우도 동일했다.

서울: 교권주의자들의 주도권 장악

남한에서의 교회 쇄신운동도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일적 신사참배 수용자들의 저항에 직면했으나, 남한에서의 친일 전력의 인사들은 교권 장악을 통해 기득권 유지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북한과 달랐다. 전기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장로교회는 1945년 8월 1일자로 타교단과 함께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는데, 해방 후 '교단'(敎團)의 인사들은 이 조직의 존속을 시도하여,¹⁵⁾ 1945년 9월 8일 새문안교회에서 남부대회란 이름으로 교단대회를 소집하였다.¹⁶⁾ 비록 자파환원론의 주장 때문에 이 조직은 1946년 6월의 남부총회의 조직과 함께 와해되었으나, 친일 전력 인사들은 해방 후의 상황에서도 교권확보를 통해 기득권 유지에 연연했음이 드러났다. 향후 한국교회 분열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 점은 김영재교수의 지적처럼 나치정권에 협력

15) 김양선, 50. 김양선의 지적대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였던 김관식(金觀植)목사 이하 송창근, 김영주 등 장로교측 간부들과 김인영, 박연서, 심명섭, 이규갑을 비롯한 감리교측 교단 지도자들은 해방 직후 그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 반성의 기간을 가져야 했다." "도리어 이들은 기존의 교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16) 이 점에 대해 민경배교수는 "여기 교권과 정치적 야욕이 동원되었을지도 모른다. 친일의 불명예가 흑시 이 교단의 존속을 통해 상쇄되는 굴절된 정신의 표현이 전혀 없었고 볼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단일 한국 교회의 원대한 희망이 이러한 형식으로나마 계승, 확립될 가능성을 주창한 것은 가찬할만한 일이었다."고 하여 외형적 기구의 일치를 중시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517.

했던 인사들이 전후(戰後) 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양보했던 독일의 경우와는 판이했다.¹⁷⁾

해방 된 현실에서도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권적 열망은 저들의 신속한 변신을 통해 유지되는데 이 점은 서울과 부산, 경남 일우에게 전개된 일련의 사건에서 보게 된다.

1946년 6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 승동교회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부총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배은희(裴恩希)목사가 회장으로, 함태영(咸台永)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양선은 일견 교회의 주도권이 이전의 교단 지도자들의 손에서 떠난 것 같이 보였으나, 교회의 주도권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⁸⁾

1947년 4월 18일 대구 서문교회에서 열린 제2회 남부총회에서는 남북통일의 조속한 실현이 희박하므로 총회로 개회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1942년 10월 16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일제에 의해 해산되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계승하여 제1회 남부총회를 32회 총회로 인정하고, 제2회 남부총회를 제33회 총회로 개회하였다. 이것은 교회조직을 재건한 일이지만, 북한의 교회는 총회의 관할 밖에 들으므로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분열의 원인

북한과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산경남지방에서도 교회재건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교회 쇠퇴론자들과 친일전력의 교

권주의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고, 결국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다.

1) 경남노회의 재건과 교회쇄신운동의 좌절

한국교회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교회쇄신운동은 부산·경남지역, 곧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친일적 성향의 교권주의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이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했다. 말하자면 해방 후 친일청산과 영적 쇠퇴운동은 좌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남은 남한에서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지였고,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주기철, 주남선, 최상림, 한상동목사 등이 경남노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교회쇄신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경남노회 지역에서의 교회 쇠퇴운동은 주남선, 한상동 등 신사참배반대로 투옥되었던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지만, 이들이 남하하기 전¹⁹⁾ 이미 교회 재건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즉 1945년 9월 2일 부산진교회에서는 최재화(崔載華), 권남선(權南善), 김길창(金吉昌), 노진현(盧震鉉), 심문태(沈文泰)목사 등 20여 명이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순복음적 입장에서 교회의 근본 사명을 쇠퇴(선언문에서 '封鎖'라는 단어를 채용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하고, 정통신앙에 기초한 교회 재건건설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고, 최재화, 심문태 두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건설과 노회복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7) 김영재, 「한국교회사」(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245.

18) 김양선, 52.

19) 주남선, 한상동 등은 평양형무소에서 출감한 이후 곧장 남하하지 못했다. 건강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중에서도 여러 지역의 집회를 인도하는 일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주남선은 거창교회의 청빙을 받고 1945년 11월경에 남하하였다. 출감 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한상동은 1946년 3월 남하하였다.

선언

과거 장구한 시일에 가혹한 위력 하에 교회는 그 정조를 잃고 복음은 악마의 유린을 당하고 신도는 가련한 곤경에 들어있었다. 이를 저항 구호하기 위하여 일선에 선 우리 하나님의 성군들은 순교의 재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옥중에서 최후까지 결사적 충의를 다하였던 것이다. 어시호 세계대전(於是乎 世界大戰)은 중국을 고하고 하나님의 성지가 우주에 나타나며, 암흑의 세력은 물러가고 정의의 은광이 오인을 맞이하자 어찌 이 기쁨을 다 말할 수 있으랴. 오늘날까지 노예의 속박하에 끌려오던 모든 제도 일절은 자연 해소의 운명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불손한 요소를 청산하고 순복음적 입장에서 교회의 근본 사명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좌기에 의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백만 신도는 이에 순응하심을 바란다.

一.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통신앙을 사수한다.

二. 우리는 조선예수교 장로회헌법을 전적으로 채용한다.

1945년 9월 일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 대표 최재화, 심문태

이 신앙부흥운동 준비위원회는 김길창과 같은 적극적 친일파와 그 동조자인 권남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구금되었던 이들 보다 앞서 교회개혁을 주창하였다. 이 선언은

일견 일제하에서 범한 과오에 대해 회개하고 자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서 속에는 회개나 자숙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변화된 상황에서의 자기 변신의 시도였다. 김영재는 “저들은 영적갱신운동의 원수로 남아있었고,” 이 선언은 “한국교회의 승리자들의 그늘 아래서 저들의 죄를 신속히 감추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²⁰⁾

그해 9월 18일 부산진교회당에서는 경남 재건노회가 조직되었다.²¹⁾ 1942년 5월 5일 일제에 의해 장로회 총회가 해산됨에 따라 경남노회가 그해 5월 25일에 해산되었었는데, 이 해산된 노회를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²²⁾ 이때에는 일제하에서 범한 죄과에 대한 자숙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일제히 자숙에 옮겨 일단 교회를 사직할 것.
2. 자숙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교직자에 대한 시무투표를 시행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것

이 안은 최재화 목사를 중심으로 강주선, 김상순, 윤순영 목사 등에 의해 제안된 것이었다. 경남노회에서의 자숙안은 소위 출옥성도들과 무관한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었고, 북한에서 출옥성도들에 의해 제시된 자숙안보다 강경했다. 북한에서는 2개월간의 자숙을 요구했으나

20) Young-Jae Kim, *Der Protestantismus in Korea und die calvinistische Tradition*, (Peter D. Lang, 1981), 139.

21) 김양선, 149.

22) 경남노회는 1942년(소화 18년) 5월 25일 “경남노회는 발전적으로 해소(解消)한다”고 발표함으로 해산되었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경남교구회로 개편되었고 김길창 목사는 해방 때까지 교구장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3년만에 다시 경남노회가 조직된 것이다.

경남노회에서 교회 사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자숙안은 북한의 산정현교회에서 발표된 재건기본 원칙보다 이를 앞서 발표된 것이었다. 이 제안은 소위 출옥성도들과 무관하며, 따라서 자숙안은 적어도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출옥성도들의 독선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경남노회의 자숙안은 친일적 인물들이 다수인 현실에서 실행되기 어려웠고, 자숙의 대상인 친일적 교권주의자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노회의 영도권을 장악하므로 자숙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김양선은 이렇게 썼다. 자숙안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교권주의자들은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여 노회의 영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암암리에 자숙안을 폐기시켰다.”²³⁾ 이때로부터 노회는 중요하기 시작하였고 영적 갱신운동은 일부 교권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길창을 비롯한 10여명의 목사들은 “신사참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미 해결한 것인데 해방이 되었다 하여 죄로 운운함은 비양심적이다”라고 하고 자숙안에 반대하였다.²⁴⁾ 주남선, 한상동 등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쟁했던 이들이 참여하기 이전의 경남노회에서조차도 신사참배 문제와 회개 자숙안은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12월 3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경남노회 제47회 정기노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남하한 주남선목사도 이 노회에 참석하였다. 이 노회에서 자숙안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자, 노회원은 자숙안을 추진하지 못한 재건노회 임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주남선목사를 노회장에 천거하고 박손혁목사를 서기로 선출했다. 주남선 목사

는 노회의 평화적인 재건은 법보다 은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양원 목사를 강사로 부흥집회를 한 후 노회를 개회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김길창, 배성근(裴聖根)목사 등 일부 교권주의적 인사들은 자기들의 각성을 의도한 집회라 하여 참여치 않았다. 집회 후 주남선목사는 노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수락을 거부하고, 노회적인 회개운동과 각 교직자들의 회개운동 등 몇 가지 실행조건, 곧 6개 항의 쇄신안을 제시하였다.

1. 본 노회 소속 일반 교회는 내년 부활주일 전 주일까지 성례시행을 정지하기로 함.
2. 본 노회소속 교회 제직은 내년 1월 10일까지 서무사면을 단행하기로 함.
3. 본 노회소속 목사와 전도사는 전기 기간 중 자숙 수양하되 1946년 1월 1일부터 동 10일까지 일전 한 장소에서 공동 집합하여 수양하기로 함.
4. 각 교회 교역자는 전기 수양회 후에 청빙기로 함.
5. 내년 1월 제1차주일은 금식 참회일로 정함.
6. 신사참배 결의 취소를 총회에 현의하기로 함.

또 전기 6조를 시행할 이유로 다음 5가지를 들었다.

1.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2. 교회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3.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4. 조선교회가 세계교회에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5. 선교회에 조선교회가 예전 상태에 환원 된 것을 나타내

23) 김양선, 149.

24) 한상동, “현하 대한 교회에,” 『파수군』 2호(1949. 4), 19.

기 위하여.

1945년 12월 6일, 주남선.²⁵⁾

인 쇄신안의 대의는 실행되지 못했던 자속을 시행하자는 것으로서 시무사면을 포함한 선명한 자속의 요구였다. 이 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논란 끝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부 교권주의자들은 노회의 결의를 불복하고 교권 장악에 몰두했는데 이것이 경남노회를 혼란으로 이끌어 갔고 급기야는 한국장로교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1946년 7월 9일 진해읍교회에서 경남 47회 임시노회가 개최되었다. 이때는 평양에서 남하한 한상동 목사도 참여하였다. 이 노회에서 주남선목사가 노회장직을 수락하였다. 이 노회에서는 “출옥성도들의 신학교(고려신학교) 설립을 크게 환영하여 학생의 추천과 교사 이동(二棟)의 대여를 약속”하기도 했다.²⁶⁾ 이 당시 경남노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쇄신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이때에도 교권주의자들은 적극적인 교회봉사가 교회재건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속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출옥한 인사들을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12월의 정기노회를 앞두고 교권 확보를 통해 노회 영도권(領導權)의 반전을 시도하였다.

1946년 12월 3일 진주 봉래동교회에서 개최된 경남노회 제48회 정기노회는 김길창 측의 교권확보를 보여주는 커다란 변화였다. 이때 김

길창 일파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김길창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노회주도권을 장악하였다.²⁷⁾ 이렇게 되자 신사참배 건에 대한 회개와 교회쇄신에 관한 노회분위기는 급선회 하였다.²⁸⁾ 이때 모 노회원은 회장에게 “신사참배가 죄냐 아니냐를 표명하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부터가 아닌 강제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 아니요?”라고 답하면서²⁹⁾ 신사참배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 가결하였다. 친일적 인사가 노회장이 되자 교회쇄신의 요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특히 이 노회에서는 고려신학교의 인정 취소론을 제기하고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정하였다.³⁰⁾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 쇄신을 요구하는 인사들을 압박하였고, 교회쇄신의 요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상동은 “불손한 태도를 고침이 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경남노회가 바로 설 때가 지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그의 탈퇴는 “바로 설 때까지”라는 시한부 탈퇴였으므로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³¹⁾ 한상동의 탈퇴선언은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거하기로 하고, 1947년 1월 3일자로 부산의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영도교회, 마산의 문창교회, 거창의 거창읍교회, 남해의 남해읍교회 등 6개 교회가 연합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 부산노회 소속 67개 교회는 제 48회 노회의 결의에 항거하고 한상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³²⁾ 부산의 초량교회에서는 신도대회(信徒大會)를 열어 주

27)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역사편찬위원회, 2002), 240.

28) 한상동은 “그때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공기로 화하였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한상동, “현하 대한교회에,” 5.

29) 한상동, “소위 고려파가 생기기까지,” 「고려신학보」 1권(1972), 38.

30) 김양선, 152.

31) 김양선, 152.

32) 김양선, 152.

25) 필자는 주남선의 자필로 기록된 이 문건을 호주 멜보른의 연합교회 고문서관(Uniting Church Archives, Synod of Victoria, Melbourne, Australia)에서 입수하였다.

26) 김양선, 151.

상수 장로(후에 재건파 목사가 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평신도들 항의가 계속되었다.

경남노회는 이 중대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947년 3월 10일 구포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죄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이들을 '처리' 하려고 했으나 대세가 불리하게 되자 노회장 김길창 목사 이하 전임원은 총사퇴하고, 거센 항거에 마지 못해 신사참배, 본묘 배례, 시체배례, 국기배례는 죄임을 다시 인정했다.³³⁾ 또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시대의 범죄사실에 대해 교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 이 때 한상동 목사에게 탈퇴 성명을 취소하는 성명서를 내라고 종용하였으나, 한상동은 신사참배는 죄라고 표명한 것은 진정한 자숙이 아니라 경남노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탈퇴성명이 가담하게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사실 김길창을 비롯한 노회임원의 총사퇴는 평신도들의 항거에 못이긴 잠정적인 후퇴였다. 그해 3월 24일에는 마산 문창교회 등 68개 교회 평신도 대표 200여명이 모여 황철도 전도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경남노회의 부패성과 그 교권주의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친일적 교권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지방에서 전개된 교회쇄신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온 것은 평신도들의 거센 항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7년 12월 9일 부산 광복교회에서 경남노회 제49회 정기노회가 소집되었다. 이 때는 박형룡박사가 고려신학

교 교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지난 때였다. 설립자들과 적당한 때에 총회인준을 받기로 합의한 박형룡은 노회에서, "신학교는 이사회와 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교회의 원조를 얻는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총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고려신학교와 노회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또 이 노회에서는 제47회 노회에서 결의한 자숙안에 대해 불복한 목사들에게 사과서를 받기로 결의하자 한상동 목사는 47회 노회에서 의 시한부 탈퇴선언을 취소하였다.

1948년 9월 21일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가 김길창이 시무하는 향서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는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던 박형룡이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떠난 이후였다. 전기한바와 같이 박형룡은 1947년 10월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으나 1948년 5월 한상동과의 의견 차이로 교장직을 사임하였고, 상경하여 남산에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했다. 박형룡의 고려신학교 철수는 고려신학교 집단은 박형룡과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도 수용하지 못하는 독선적 집단이라는 비난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 때부터 고려신학교에 대한 공격은 심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신사참배 문제로 명분을 잃었던 친일적 인사들의 반격이 심화되었다.

1948년 5월에 소집된 제34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 문제가 처음으로 총회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남 순천노회가 "고려신학교에 학생을 추천해도 되는가?"를 질의했을 때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통리출신으로 총회 정치부장이었던, 김관식(金觀植)목사는 "고려신학교는 우리 총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노회가 천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적극적 친일파로 신사참배론자였던 그는 고려신학교

33) 경남노회 제48회노회 구포 임시노회 회록(1947. 3. 10)

와 그 집단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남노회의 김길창, 김영환, 배성근, 진중학목사 외 7인은 “고려과와 소위 신성파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려신학교와 그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동시에 회개, 정화, 교회 쇠퇴를 주장하는 이들을 분쇄하려는 의도에서 임시노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모인 회의가 1948년 9월 21일 항서교회에서 소집된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였다. 이 노회에서 김길창, 배성근측은 노진현 등 중도파를 끌어들여 44:21로 고려신학교 인정취소를 결의했다.³⁴⁾ 이것은 반 쇠퇴론자들의 두 번째 고려신학교 취소였다. 이 때 송상석 목사와 장영실장로는 지난 노회의 결의를 재론 동의 없이 결의한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소원장을 낼 것을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고려신학교 재조사 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었다.

1948년 12월 7일 마산문창교회 별관에서 경남노회 제50회 정기노회가 개최되었다. 김길창에 이어 노진현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노회의 결의에 따라 경남노회 신학부장이자 고려신학교 조사위원이었던 신문대목사는 고려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나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재확인하였다.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친일적 인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목사에 의해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그는 노회석상에서 일제시대에 범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자신은 ‘미소기바라이’를 한 사람이며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예식으로 행하는 이

4) 김양선, 156. 이 당시 김길창을 지지했던 인사들로는 권남선, 김광수, 김만일, 김석진, 김영환, 박근현, 박창근, 배성근, 백운학, 진중학목사 등과 김상욱, 김찬서, 백시돈, 이의석 장로 등이었다.

의식을 송도 앞바다에서 7번이나 행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회중은 숙연해 졌다. 이 때 좌석에 앉아 있던 김길창은 “미소기바라이가 무엇인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목사들을 인솔하여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신도제사장들의 세례의식인 미소기바라이를 행했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가증함을 보고 참지 못한 한상동은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김길창을 제명해야 한다고 동의 하였을 때 곧 제장이 뒤따랐다. 사태가 불리해지자 김길창은 노회장을 이탈하였다. 노회장 노진현목사는 본인이 현장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가부를 묻지 않고 다음 회기 시까지 유보한다고 선언했고 노회는 이를 받아들였다.³⁵⁾

2) 김길창의 경남노회 이탈

경남노회에서의 신사참배 문제는 급기야 경남노회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것은 한국장로회의 분열의 시작이었다. 그 발단을 제공한 인물이 김길창이었고, 김길창을 지지한 이들과 남부총회는 부분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김길창목사를 비롯한 소위 교권주의자들은 경남노회에서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으나 명분에는 밀리고 있었고, 한상동목사를 중심한 이들은 노회에서 수적으로는 소수였으나 교회쇄신론은 상당한 명분을 얻고 있어 평신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1949년 2월 당시 경남노회에는 65명의 목사가 있었는데,³⁶⁾ 크게 3

35) 경남노회 제50회 정기노회록.

36) 65명의 목사는 다음과 같다. 강상은, 강성갑(진영읍 한일중학교), 강주신(함양읍교회), 권남선(부산 남부민동 향남교회), 권태희(서울 대한보국회), 김길창(부산부 대정동 항서교회), 김동선(경남도 학무국 사회교육과), 김두만, 김만일(부산부 북천동 동래읍교회), 김광수(김해군 대저면 대지교회), 김봉갑(사천군 곤양 성내교회), 김삼도(부산부 용호리 상애원교회), 김상도, 김상세(사천읍 수석리), 김상순(부산부 부전교회), 김석권(김해군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재건 혹은 쇄신을 주장하는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상동, 주남선 등 출옥인사들을 지지하는 일파, 둘째로는 교회쇄신과 교회쇄신의 정신적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고려신학교를 반대했던 김길창, 권남선, 배성근 등 친일적 성향의 교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일파, 그리고 양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노진현(盧震鉉), 심문태(沈文泰), 이수필(李秀弼) 목사 등 중간파가 세 번째 부류였다. 이 중간파의 일관적이지 못한 처신이 노회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노회에서 제명 위기에 몰린 김길창은 자신들을 위한 호신책으로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래서 1949년 2월 19일자 별도의 경남노회 조직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발기인 대표 권남선'의 이름으로 발송했다. "... 신앙신조가 맞는 신앙동지들끼리 모여 열심 신주(信主)하여 전도사업에 진력함이 신앙양심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 앞과 혼란기에 있는 국민 앞에 기독교의 취할 명량한 노선"이라고 그 취

장유면 무계), 김석진(남해군 남면 평산교회), 김재규(함안군 칠북면 이령교회), 김용상(부산부 동광동 4가 10), 김응진(창원군 대산면 일동교회), 김학용(밀양군 무안면 무안교회), 노윤거(신마산교회), 노진현(부산부 대청동 중앙교회), 박근현(김해 대동 조물교회), 박도홍(마산 형무소), 박순혁(밀양읍교회), 박시순(통영군 육지교회), 박창근(산청읍교회), 박형룡(서울 장로회신학교), 배운환(남해군 남면장항교회), 배성근(창녕읍교회), 백운학(진해읍 경화동교회), 백영(?)기, 손순열(밀양 역전교회), 손양원(전남 여수 애양원교회), 손의원(부산진교회 유), 송상석(마산부 문창교회), 심문태(마산부 창신중학교), 심취명(울산읍교회 유), 양이녹(창원군 동면 본포리), 윤술용(밀양군 상남면 예림리), 윤주환(부산형무소), 은희봉, 이병섭(창원군 상남면 가음정교회), 이성관(울산읍교회), 이수필(부산부 보수동 광복교회), 이약신(진해읍 진해교회), 이영규(부산부 서대신동 1가 100), 이영환(하동읍교회), 이계만(창원군 웅동면 마천리교회), 이학경(?), 임도오(통영군 사동면 사동교회), 임학찬(부산상업실천학교), 주남선(거창읍교회), 조상민, 전성도(김해읍교회), 지수왕(진영읍 진영교회), 진종학(통영군 문화동교회), 한대식(진주부 남성동 성남교회), 한명동(부산부 영도교회), 한상동(부산부 초량교회), 한익동(부산부 광복교회 유), 홍순탁(함안 역전 말산교회), 황철도(진주부 봉래동교회),

지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 김길창 일파는 노회의 분리를 의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예정에 따라 3월 8일 그가 시무하는 항서교회에서 10여명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다. 노회 조직과 함께 4월에 있을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했다. 이들이 기존 노회를 이탈하여 불법적인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한 것은 친일인사들의 자기 보위를 위한 수단이었다.

기존의 경남노회를 이탈한 별도의 노회(私租老會) 조직은 경남지방에서 일어난 대수롭지 않는 사건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것이 경남노회의 분열이자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시작이었다.

그해 3월 8일에는 예정대로 마산 문창교회에서 경남노회 제51회 정기노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제50회 노회에서 정기노회를 매년 3월과 9월 연 2차 회집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부산 항서교회에서 김길창목사가 별도로 조직했던 노회가 불법 노회임을 깨닫고, 마산 문창교회에서 모인 노회에 참석하여 사과서를 낸 목사들도 있었다. 이들이 강주선, 김봉갑, 김석진, 김재유, 김종세, 양이득, 이영환, 진종학 등 8명의 목사들인데, 사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노회장 죄하

제 51회를 앞두고 같은 날 부산성경학원에서 뜻이 맞는 목사, 장로들이 다른 노회를 모이겠다는데 서명날인 했으나 그 후 그 일이 불법 인줄 알고 50회 결의대로 1949년 3월 8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모이는 노회가 범통 인줄 알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사과하나이다.

경남노회의 분열, 그리고 이 분열 수습에 대한 총회의 부당한 처사는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현실화했다.

3) 총회의 부당한 처리

그런데 문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기존의 합법적인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김길창 일파가 불법으로 조직한 노회를 합법적 노회로 인정하고 저들의 총대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총회가 이때 적법한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면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해방 후 장로교(남부)총회를 주도했던 인사들 또한 경남노회의 김길창일파와 동일하게 친일적 전력의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 지도자들은 김길창을 지지하였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신앙 정기를 바로 잡지 못했다.

1949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새문안교회당에서 제35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최재화)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는 기존의 경남노회(노진현, 박손혁, 송상석, 심문태목사, 이약신목사와 엄주신 등 6인의 장로)와 김길창의 사조 노회가 각각 총대를 파송하였다. 이 총회에서 기존 경남노회 총대를 적법한 총대로 인정했으나, 경남노회 분규권이 종결될 때까지 발언권을 보류했다. 총회는 불법적인 사조 노회를 조직한 김길창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 경남노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경남노회 사건은 한부선파와 관계하지 말고 고려신학교와는 거년총회가 결정한대로 노회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

은 총회결의에 위반되는 일이며, 삼감이 마땅하오며 기타의 모든 복잡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5명을 선정하여 심사 처리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 전권위원은 김현정, 김세열, 김재석, 서정태, 구연직 5인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³⁷⁾

이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한부선일파와 고려신학교와 관계를 끊고, 경남노회문제는 5인의 전권위원들에게 처리를 위임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 의하여 5인의 전권위원회는 1949년 5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한부선선교사 일파 및 고려신학교와의 관계는 이미 총회로서 결정한 것이니 노회는 순종하여 이를 실행할 것이며, 그들이 독선적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분규와 소란을 일으킴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말 것이며, 제35회 총회 이후로도 그 학교와의 관계를 계속하며 지지하는 자는 총회를 거역하는 행위이니 노회가 적절히 처리할 일

이라고 발표했다. 즉 한부선일파와 고려신학교와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신학교와 한부선 일파를 고립시키려는 총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제51회 경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 임부원을 원천 무효로 선언하고 제50회 임부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 선언은 제51회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임부원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고, 고

3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5회 총회회의록(1946-1956), 58.

려신학교 측에 우호적이지 않던 이들도 총회 전권위원회에 대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총회전권위원회 또한 사조(私組) 노회의 중심인물인 김길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남노회를 경남노회(부산지방), 경중노회(마산,통영지방), 경서노회(진주,거창지방)로 3분 할 것을 결의하고 각 노회의 소집책으로 김길창과 가까운 김만일(광복교회), 심문태(신마산교회), 박창근(진주읍교회)을 임명했다. 즉 총회는 고려신학교 관계자와의 강단교류를 금지시키고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인사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남노회 3분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처사에 대해 경남노회장 이약신(李約信)목사는 그해 6월 13일자로 총회와 총회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정면 반박하는 다음과 같은 항의서를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총회 전권위원을 불신함.
2. 우리는 적당한 시기가 오기까지 노회를 분립하지 않고 종전대로 경남노회 51회 노회(1949. 3)를 계승한 경남노회 그대로 나아감.
3. 우리는 총회전권위원회 결의 발표를 무조건 철회하기 까지 불복종을 계지(繼持)함.³⁸⁾

이 항의서에는 전권위원들이 위헌적 월권과 그 구성원들이 친 김길창계 인물들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실제로 권세열, 서정태 등이 대표적인 김길창 지지자들이었다. 전권위원회의 부당한 결정, 특히 제 51회 노회임부원 선출을 원천적 무효로 선언한 것은 경남노회 해산을

38) 이약신, 항의서(1949. 6. 13).

요구한 것과 같은 무리한 결정이었고 이런 부당성은 경남노회 주류측과 고려신학교 지지측을 정서적으로 결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³⁹⁾ 당시 경남노회의 170여 교회 중 111개 교회가 전권위원회의 노회 3분안을 거부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기존 경남노회의 존속과 계승을 선언했다. 노회 3분안을 지지하는 교회는 김길창 일파를 추종하는 50여개 교회에 불과했다.

경남노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전권위원회는 1949년 6월 30일자로 “경과상황”을 발표하고 기존 결정을 해명하였다. 그해 8월에는 경남노회장 이약신, 총회 총대결 노회원 이순필, 송상석 명의로 “경남노회사건 총회전권위원회의 경과사항 발표에 해답함”이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경남노회의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때 경남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인 부산초량교회, 제일영도교회, 진해읍교회, 마산문창교회, 진주봉래교회, 거창읍교회 등 111개 교회(8월 18일 현재)는 “총회전권위원회의 노회 3분안 결의는 불법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 1949년 8월 28일, 29일 양일간 마산문창교회에서 천여명의 평신도들이 회집하여 ‘경남신도대회’를 열고 경남노회문제에 대한 총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선서문을 발표하였다.

선서문(宣誓文)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노회 신도는 1949년 8월 28일, 29일 양일간 마산 문창교회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하기와 같이 결의하고, 이를 중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진언키로 함.

39)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생명의 말씀사, 2008), 450.

기

1. 우리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자”는 각성 하에 정통신앙을 필사적으로 보수 하고 이단과 신신학을 적극 배격함.

2. 우리는 경남노회와 고려신학교와 한부선 선교사에 대한 총회결의는 총회에 재심을 진정하며 그 전권위원의 결의는 단연 배격함.

3. 우리는 지난 3월 8일 마산서 모인 경남 50회 노회를 계승하는 경남전체 노회를 끝까지 승복지지 하는 동시에 소위 3분 노회라는 것은 그 존재까지 부정함.

4.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 무엇어든지 이에서 지나면 악으로 좃아 나나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는 유일하고 명요하며 회색적 사이비한 평화, 합동, 공작을 표방하는 소위 중간과운동은 배격함.

5. 자파의 세력을 부식할 목적으로 허구낭설을 조성, 유포하며 성직자를 중상 참소하는 자들을 철저히 처치하기를 요청할 것.

6.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국교계 내에 일제의 잔재인 신사참배 찬성과 권장파로 구성되어 있는 교권빨력을 타파할 것을 요청할 것.

위 선서함.

1949년 8월 29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신도대회 일동

같은 날 경남노회 기독교청년 면려회 경상대회원도 이와 유사한 성

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때의 평신도들의 항거는 대단한 것이었다.

경남노회에는 기존의 경남노회측에 속하지도 않고, 경남노회 3분안을 동조하는 김길창계도 아닌 제3의 구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중간파’로 불리는 노진현, 이수필, 김성여(金聖侶) 등 친 박형룡계의 인사들이었다. 이들이 제3의 중립적인 경남노회를 조직함으로써 결국 경남노회는 삼분오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합법적인 노회를 김길창이 조직했던 불법노회나 총회 전권위원회가 의도하는 3분 노회와 구별하기 위해 ‘경남법통노회’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경남에는 기존의 경남(법통)노회와 총회 전권 위원회가 임의로 3분한 3노회, 그리고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한 박형룡과 뜻을 함께 하는 중립파의 노회 등 5개 노회가 존립하게 되었고, 이 문제는 극도의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경남노회문제는 총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36회 총회(총회장: 권연호)가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의 논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장로교신학교(박형룡)과 조선신학교(김재준)측의 대결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남노회 회원권의 문제였다. 총회는 개회 벽두부터 논란이 벌어져 육설과 폭력이 난무하였고, 5일간 회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이 동원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김양선은 이 때의 총회는 “한국교회 70년 사상 처음 보는 대 치욕적 사건”이라고 했다.⁴⁰⁾ 의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경 총회장단과 임원회가 연석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문제는 간단치가 않았다.

4월 22일 회집된 총회에서 경남노회 문제에 대한 총회전권위원회(위원장 김세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했다.

40) 김양선, 157.

1. 삼분노회 이외의 두 노회도 삼분노회와 같이 노회로 인정함
2. 구 경남노회(법통측)의 명칭은 마산노회로, 중간 측은 부산노회로 함
3. 각 노회 총대는 매 노회에 목사, 장로 각 2인씩으로 함
4. 모든 노회 회원과 총회 총대는 제34, 35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고려신학과 관계 없는 것을 성명한자로 함
5. 이상 제 조항에 순종치 않는 노회는 자연 노회가 취소되는 것으로 인정함

제35회 총회가 인정한 기존의 경남노회를 총회전권위원회는 후에 조직된 불법 노회와 함께 다섯 노회 중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불법이었다. 특히 고려신학교와의 절연을 요구한 것은 고려신학교와 그 관계자들, 곧 교회쇄신론자들을 배척하자는 의도였다. 전권위원회의 보고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 총회에서 조선신학교 측은 3분 노회를 받자고 주장했으나, 장로교신학교 측에서는 경남의 3분 노회측의 총대 자격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욕설과 폭력을 동반하였고, 이 때의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파의 교권 확보를 위한 대결이었다. 경남법통노회의 파송을 받은 12명의 총대는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회의 넷째 날인 4월 24일 오전 총회에서는 총회전권위원회의 보고를 기각하고 별도의 별위원(別委員) 7인을 선정하여 경남지역에서의 노회문제 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고, 5개월 후인 9월 5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로부터 꼭 두 달 뒤인 6월 25일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는 주장이 없지 않다.

제36회 총회에서 선임된 별위원 7인은 권세열, 김광현, 김상권, 박용희, 이대영, 이인식, 조승재목사 등이었는데, 경남노회 문제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종전의 전권위원과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1950년 5월 12일 마산에 와서 교회대표자를 소집하고 “총회가 고려신학교 인사들과 관계를 가질 때까지 그들과 관계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선언하였다.

1. 고려신학교 관계자는 총회결의에 불복종한 자복서를 내고, 총회가 관계를 가질 때까지 회원권을 중지함.
2. 경남노회 제51회(1949. 3)노회 이전으로 돌아가서 노회를 조직한다.
3. 6월 7일 부산진 교회에서 노회를 소집한다.

이상의 3가지 선언을 볼 때 별위원들의 의도는 기존의 합법적인 노회인 경남법통노회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려신학교 관계자’란 바로 경남법통 노회 인사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경남노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김길창의 사조직 노회로 유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로 조치가 없는 것은 부당한 처사였다. 특히 정통성을 지닌 경남노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 별위원들은 법적 정통성을 지닌 기존의 경남(법통)노회를 (35회 총회가 파송한) 전권위원회가 조직했던 삼분노회와 중간파 노회를 동일시하였고, 전권위원회 보고가 기각되자 경남(법통)노회도 함께 ‘포화(泡和)되었다는 교묘한 논리로 경남지역 노회의 ‘진공(眞空)을 말하면서 새로운 노회 조직을 운운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경남노회 지역의 178개 교회 중 133개 교회가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하였고, 3분 노회를 지지하는 교회는 26개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⁴¹⁾ 나머지 19개 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였다. 별위원들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처사는 불신을 받았고, 경남지방의 120여개 교회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항의서를 별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항의서

별지 서명 날인한 주상수 외 249명은 귀 특별 위원회에서 발송한 소집 통지서에 의해 5월 12일 마산 집회에 참석해 경남지방 노회에 관한 처사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좌기 각항 이유로 항의하여 래 9월 총회에 진정키로 하고, 경남에 별 노회 조직 여부를 불문에 붙이고 우리는 경남법통노회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하여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자에 항의하나이다.

1950년 5월 13일

경남노회 교회대표자 대회

기(記)

1. 5월 12일에 마산서 소집된 경남지방 교회 대표자회를 소집한 특별위원회는 총회결의를 무시한 처사임
2. 특별위원이 받은 권한 외에 월권적 간섭을 감행한 일 (고려신학 관계자에 자복서 제출을 요구)

3. 경남 51회 노회(1948년 2월 전)로 환원시킴은 1948년 12월에 피선된 총회총대들이 35회 총회에 임부원으로 일한 것을 취소할 수 없음

4.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목적 중에 경남노회건을 기입한 것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재론 없이 파기하지 못함

5. 경남노회 분열원인이 신앙신조와 신앙양심문제임을 여실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신학관계와 총회불복종 이유에 귀결시킴은 경남노회 실정을 오인 한 처사임

6. 경남법통노회가 어떠한 논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자로서 경남법통노회를 절대 지키기로 서약한 교인들임을 첨언함. 이상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특별위원장 귀하.

이 항의서에서, 고려신학교 관계자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별위원회의 월권이며, 경남노회의 분열 원인이 김길창에 의해 조직된 불법노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책임을 고신관계자와 이들의 총회 불복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다.

별위원회는 모든 기존의 조직을 무시하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기 위해 1950년 3월 7일 부산진교회당에서 교회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6.25의 발발로 노회 조직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경남법통노회는 “경남에는 역사적인 경남(법통)노회 외의 다른 노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하며, “(법통)노회란 분열되지 아니한 경남노회 원상 그대로를 말하는데, 분열되어 나간 이들이 모체인 법통노

41) 이상규, “교회계전운동과 고려과의 형성,” 『논문집』(고신대학 출판부, 1984), 195.

회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어 노회를 재조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노회 조직의 부당성을 진정했다. 그러나 별위원들은 제36회 총회의 속회를 앞두고, 1951년 3월 14일 부산 중앙 교회에서 별도의 노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에 참여한 교회는 경남지방 교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3분 노회를 지지하는 이들이 중심이었다. 이 때 목사 38명, 장로 45명이 참여하여, 노회는 회수를 52회로 하고 김석찬목사를 회장으로, 양성봉장로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김몽수(서기), 이수필(회록서기), 배운환(부회록서기), 우덕준(회계), 지부업(부회계)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이 회의에서는 노회불법조직(교회 분리)으로 경남노회에서 치리를 받았던 권남선, 김길창, 김만일, 김영환, 김응진, 김재규, 배신환, 백운학, 손순열, 지수왕목사의 해별(解別)을 선언했다. 기존의 노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한 것은 기존의 경남(법통)노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교회 쇠퇴론자들인 고려신학교 관계자를 교회조직으로부터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경남에는 현존하는 경남노회 외에 다른 노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탈해 나간 김길창 측이 노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문제해결이며, 별위원회의 잘못된 지도가 한국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했던 3월 14일 자의 경남(법통)노회의 진정은 곧 현실화 되었다.

1950년 4월 21일 대구에서 모인 장로교 제36회 총회는 동년 9월 5일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하였음을 이미 말한바 있는데, 6.25 동란으로 속회하지 못하고 있다. 1951년 5월 25일 피난민의 도성인 부산중앙 교회당에서 속회되었다. 이 총회에서는 입장권을 발부하여 참석자를 제한하였는데, 각노회의 총대수대로 입장권을 배부했다. 입장권을 받지 못한 경남법통노회 12명의 총대는 총회장 입장이 원천적으로 봉쇄

되었다. 경남법통노회나 고려신학교 관계자들을 봉쇄하려는 사전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별위원회의 보고가 채택되었고, 별 위원회가 조직한 별노회(別老會) 총대들(권남선, 김길창, 김두선, 김몽두, 김석진, 김응진 등 6명)에게 총대권이 주어졌다. 경남법통노회는 언권 요청마저도 무정하게 거절된 채 총회에서 축출 당하고 말았다.⁴²⁾ 이 점에 대해 김양선은 이렇게 썼다.

... 일선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교회가 어울로 임시 수도 부산에 피난 중에 있을 때에 눈물을 먹음고 모인 성회이었으나, 총회의 주도권을 가진 수삼(數三)의 교권주의자들과 그 배후에서 암약하는 수삼 기회주의자들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몰각(沒却)한 교권적 행동 때문에 출옥성도를 중심한 고려신학교 측이 제외된 경남노회가 승인되어 마침내 고려신학교는 총회의 문외로 쫓겨나 저들만의 노회를 조직하고 경남 법통노회라 이름 하였다.⁴³⁾

김양선이, 총회로부터 축출된 후 “저들만의 노회를 조직하고...”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저들만의 노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남(법통)노회에 남아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들이 총회로부터 축출되었다는 지적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정리하면,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합법적인 ‘경남법통노회’를

42) 또 이 총회에서는 신학교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김재준 중심의 조선신학교와 박형룡이 1948년 5월 20일 설립한 장로교신학교 양 학교의 인정을 취소하고, 총회직영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 결의에 따라 감부열선교사를 교장으로 박형룡을 교수로 하는 총회직영 신학교를 대구에 설립하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박형룡의 장로교 신학교를 개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43) 김양선, 158.

부인하고, 불법 총대를 받아 드리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일 전력의 교권주의자들의 자기 보위를 위한 노획 분열을 정당화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해방 후 친일청산에 실패한 것은 교회정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주된 요인이었다.

4. 고신교회(단)의 형성

비록 총회로부터 부당하게 축출되었으나 경남(법통)노회는 교회 분립을 원치 아니하였다. 이 점은 제36회 총회에서 축출된 후 발표된 성명서⁴⁴⁾나 1951년 6월 12일 마산교회당에서 개최된 제54회 임시노회 때의 결의문 속에 나타나 있다.⁴⁵⁾ 이들은 총회에서 축출된 다음 해인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교회당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총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이 점은 후에 고신교단을 조직했던 이들이 분열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총회는 “고려신학교와 그 관계 단체와 총회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재언명으로 경남(법통)노회를 완전히 축출하였다. 이렇게 되자 경남법통노회의 총회와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총회로부터의 축출이 재확인되었다. 이 당시 경남노회 지역의 교회는 344개 처였는데, 이중 별노회에 속한 교회는 58개 처로 전체 교회의 14%에 불과 했다.⁴⁶⁾ 말하자면 절대다수인 85%의 교회가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44) 「면려청년」제14호(1951. 6. 10), 2.

45)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제54회 임시노회(1951. 6. 12) 활요.

46) 교회 수 통계는, 기독교청년면려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교회 및 교역자 명부(1951. 4)에 근거함.

1) 초량교회의 명도(明渡) 요구

경남(법통)노회가 총회로부터 축출된 지 약 3개월 후인 1951년 9월 8일 총회는 한상동목사에게 그가 시무하는 부산 초량교회 명도를 요구하였다. 한상동은 1946년 7월 30일부터 초량교회 담임목사로 일해 왔고, 초량교회는 약 500명의 신도가 회집하는 경남지방의 우수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가 경남(법통)노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초량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라는 요구였다. 이 당시 교회명도를 요구받은 교회는 초량교회 외에도 영도교회, 마산 문창교회, 진주교회, 거창읍교회, 남해읍교회 등 경남지방의 6개처 교회였다. 당시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길창 명의로 제기된 명도 소송은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하는 교회들을 압력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초량교회 한상동목사는 교인 90% 이상이 자신과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했으나 교회의 화평과 건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초량교회를 사임하였다. 김양선은 이때의 일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교회의 주권을 의식적으로 교권주의자에게 바친 때문에 일어난 일대불상사들이었다”고 평하고, “한국교회 70년 사상에 있어 이 때처럼 교권의 행세(行勢)된 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⁴⁷⁾

초량교회를 사임한 한상동목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 대립이나 법적 소송을 취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초량교회를 양도하였고, 1951년 10월 14일 주일 저녁 함께 초량교회를 떠난 주영문 장로 집회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부산 삼일교회(三一教會)의 시작이었다.

47) 김양선, 159.

2) 고신교단의 조직

총회에서 축출된 경남(법통)노회 인사들은 일년이 지나도록 총회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별도의 조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당에서 모인 제57회 경남법통노회에서 총노회 조직을 결의하고, 목사 50명, 장로 37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총노회(總老會)를 조직하였다. 고신교단의 조직이었다. 임시회장 이약신(李約信)목사는 다음과 같은 총노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발표하였다.

취지: 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본 장로회 정신을 떠나서 이(異) 교파적으로 흐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참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계승하기 위하여 총노회를 조직함.

목적: 전통적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정신을 지지하는 전국 교회를 규합하여 통괄하며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하여 법통노회를 장차 계승기로 함.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 이약신목사, 부회장 한상동목사, 서기 홍순탁(洪順卓)목사, 회록서기 오병세(吳秉世)목사, 부서기 윤봉기(尹奉基)목사, 회계 주영문장로, 부회계 김인식장로였다. 이 당시 고신교(회)단에 속한 교회는 320여개 교회였고, 이중 90%정도가 부산, 경남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다.

총노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고백하고 자숙하기 위한 3주간의 특별집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3주간의 자숙의 기간을 보내고 1952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 발회(發會)를 공식 선포하였다.

총노회가 조직될 당시는 경남지역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타 지역

으로도 교세가 확장되어, 경북노회(1953), 경기노회, 전라노회(1954), 부산노회, 전주노회(1956)가 조직되었으므로 1956년 9월 20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이 당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는 568개 처였는데, 이중 부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387개 교회로 전체교회의 70%에 해당했다. 목사는 111명, 전도사 252명, 장로 157명, 세례 교인수는 15,350명으로 보고되었다. 총회를 조직한 후 이를 기념하여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과로 1957년 김영진(金英進) 목사를 대만에 파송하였다.

이 기간동안 고려신학교가 정비되었고, 1951년에는 복음병원이 영도 남항동에 설립되어 자선병원으로 봉사하다가 1957년에는 지금의 부산시 서구 암남동(송도)에 병동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장기려 박사는 이 병원에서 원장으로 봉사하였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 이 병원은 자선병원으로 인식될 만큼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크게 봉사하였다. 1947년 '학생신앙운동'이 '학생신앙협조회'란 이름으로 태동하여 순수 한국산 학생신앙운동(SFC) 단체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맺는 말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의 배경에는 해방 후 교회쇄신의 문제, 교권의 장악, 그리고 신학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해방 후 교회 쇠퇴문제와 관련하여 쇠퇴론자들과 현실 타협적 지도자들 간의 대립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신학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분열의 주효한 요인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은 이미 일제

하에서 배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신사참배 강요와 해방 후 이에 대한 회개와 권징의 문제는 고신교단 형성의 배경이었고, 김길창 중심의 친일전력의 교권주의자들은 교회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1950년대 초 장로교회의 분열에는 신학적 요인이 없지 않았으나, 일제하에서 부일협력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신속한 변신을 통해 교권을 행사하고, 치리회를 장악하려는 교권주의가 교회 분열을 가져온 지배적인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방 후 친일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잡지 못했듯이, 해방 후 친일적 인사들의 교권의 행사는 신앙적 정의를 확립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의 요인이 된 것이다.

이만열교수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교파단위적인 선교나 선교지 분할정책이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遠因)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분열의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우리 안에 내재한 내적 요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도권 확보, 파벌의식, 당파성, 지연, 혹은 학연 등 비신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을 파괴해야 할 불가피한 분열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

1950년대 분열된 한국의 4대 장로교회와 그 이후의 분열된 교회 중에서 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장로교회가 장로교 정치제도와 함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CF)를 교리표준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비록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신앙고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신앙고백이 신학과 신앙, 교회적 삶, 목회활동 등 전 영역

에 대한 규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간의 일치나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